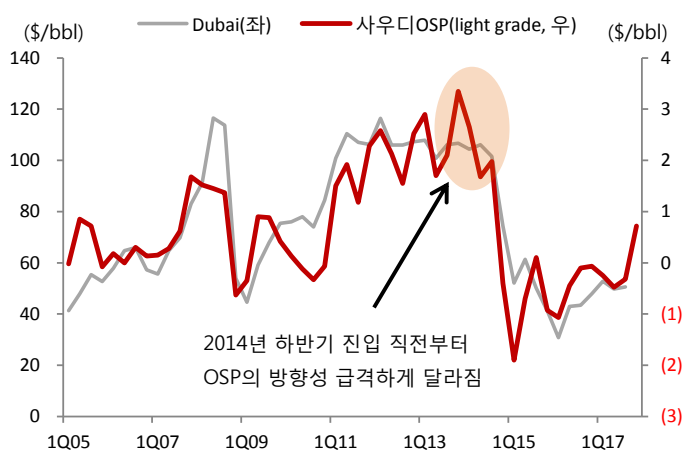


OSP로 파악되는 사우디의 유가강세 전략

- ▶ 다양한 유가 강세 전략을 펼치는 사우디, 1월 OSP 2014년 이래 최대치로 급등 발표. 명백한 유가 강세 전략임. Fundamentally 장기 저유가 의견 변함없지만, 아람코 상장 전(18년 상반기) 단기 강세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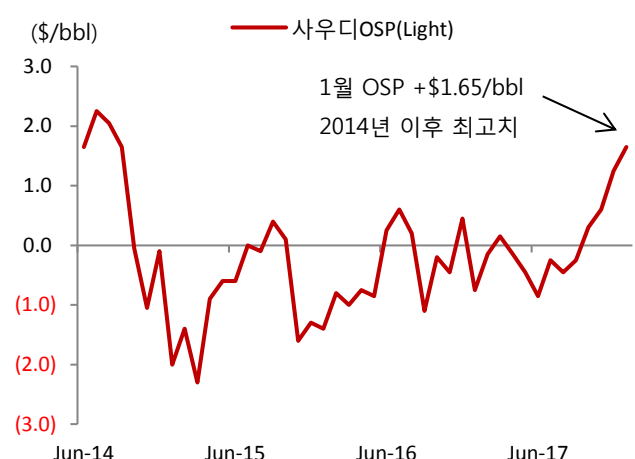
사우디 OSP는 훌륭한 유가의 단기 선행지표임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“Mr. Everything” Mohammed Bin Salman이 유가 강세 전략을 10월 말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, 사우디 아라비아가 실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
- 무엇보다 지난 주에 있었던 OPEC 정례회의에서의 감산 연장 합의 소식을 꼽을 수 있겠죠
- 사우디는 이번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는데요, 러시아 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나이지리아까지 감산에 동참을 시키면서 명백한 힘과 그들의 의도를 보여줬습니다
- 실제 러시아는 자국 국영석유회사 내에서 미국 셰일만 배 불리는 전략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감산 합의에 연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

“Mr. Everything”의 유가지지 천명 이후 OSP 급등 발표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-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OSP입니다
- OSP(Official Selling Price)는 사우디가 시장가격 대비 얼마 할증/할인 할 지 공개하는 지표인데, 단기 유가를 꽤 정확하게 선행을 하죠. 2014년 유가 급락의 trigger이기도 했습니다
- 이 수치가 지난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, 급기야 지난 주에는 1월 OSP를 무려 +\$1.65/bbl까지 상향하여 발표했습니다
- 이는 2014년 이후 최고치이자, \$100/bbl로 대변되는 고유가 시대와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
- 누차 말씀 드리지만 10여 년의 장기 저유가는 불가피합니다. 단 이는 fundamental 한 분석이고, 단기적으로 유가는 다양한 이슈에 영향을 받는데요. 그 중에서도 사우디의, 게다가 “Mr. Everything”의 의도는 충분히 임팩트 있는 요소입니다. 2018년 하반기 아람코 IPO 이전 유가는 단기 강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

